

2. 統獨 5周年의 評價와 시사점

- (統獨後의 經濟現狀) 호전되고 있는 舊동독지역의 거시경제 지표는 94년 이후 독일이 統獨 후유증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독 당시의 예상에는 못미치는 경제발전 속도로 평가되고 있음
- (統獨의 經濟政策 평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유화 정책, 통화통합 정책, 임금정책 등에서 失策들이 지적되고 있음
- (향후 展望과 課題) 兩地域이 동등한 경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초점은 갈등해소 및 화합을 위한 정신적 내부 통합에 두어야 함
- (韓國에 대한 시사점) 統獨 과정에서 노출된 경제정책의 중요한 문제점은 반환원칙 우선의 私有化 정책과 무리한 통화통합인 점을 감안하여 南北統一의 경우에는 返還보다는 補償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절한 통화 교환 비율을 算定함으로써 급격한 企業倒産 그리고 大量 失業의 발생을 막고 활발한 投資促進이 유도되도록 해야 할 것임

舊동독 지역은 9% (94년)를 넘는 高成長과 작년을 고비로 실업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統獨 당시의 豫想에는 못미치고 있음

○ 統獨 5년후의 經濟現狀

- 獨逸 경제는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반전
- 舊동독은 94년 9.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舊서독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실업률도 작년을 고비로 감소 추세임

<舊東獨지역 經濟통계>

	1991	1992	1993	1994	1995 <sup>2)</sup>
실질 경제 성장률(%)	-19.2	7.8	5.8	9.2	8.5
실업률(%)	10.4	14.8	15.8	16.1	13.9 <sup>3)</sup>
소비자물가(%)	12.8	10.1	8.4	3.0	3.0
1인당 GDP <sup>1)</sup>	31.3	38.5	44.8	48.7	52.1
생산성 <sup>1)</sup>	31.0	43.1	50.1	52.7	54.9
재정지원(10억 DM)	139	152	168	168	194

<sup>1)</sup>舊서독을 100으로 기준한 환산치, <sup>2)</sup>전망치, <sup>3)</sup>7월 현재

-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회복세는 당초 예상에는 미달
- 統獨 당시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동독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간 실제 流入된 것보다 더 많은 외부 민간투자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음

- 따라서 서독정부는 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에만 전념하면 되고 東獨經濟는 5-6년후 자립 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슈피겔」 7월호) 결과를 보면 舊동독 주민의 53%가 지난 5년간의 경제 발전에 대해 기대치 미만이라고 평가하였음

비효율적인 사유화 정책, 무리한 通貨 統合, 정치성을 띤 임금정책 등에서 失策들이 지적되고 있음

#### ○ 統一獨逸의 經濟政策 평가

- 급격한 吸收統一 방식은 급박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先 정치 통일 後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하에 단행된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되어야 함
- 통일 과정상의 統獨 경제정책의 운용은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몇가지 중요한 실책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原所有主 返還 優先原則 아래 실시된 私有化 정책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결국 이지역에 대한 외부인들의 투자의욕의 저하로 연계되었음
  - 신탁관리청의 국영 기업체 競賣 賣却方式은 첫째, 사유화된 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해고를 단행, 단기간에 大量失業을 유발시켰고 둘째, 引受主體가 서독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
  - 무리한 통화통합(1:1 교환)은 舊동독 통화의 高評價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 결국 舊동독지역의 경제를 침체시켰음
  - 舊서독 지역과 동등한 임금수준을 단기간에 이룩하려는 임금정책은 舊동독 지역의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훨씬 상회하게 하여 기업 경쟁력의 상실과 대량실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

#### ○ 向後 展望과 課題

- 統獨 작업의 완성은 경제적, 정치적 국력 신장을 가져와 獨逸의 유럽내 초강대국 등장을 촉진하고 유럽통합 기간을 단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統獨의 완성을 위해 향후에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며, 외형적 통일과 정신적 내부통합을 완성하면 獨逸은 EU지역 내 강대국의 위치를 구축할 것임

東西獨 統一의 경험을 한국실정에 맞는 統一戰略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 그러나 兩地域이 동일한 경제수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그간(91-94년)의 지원액(6,270억마르크)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임
- 統獨 완성작업에 있어 향후 최대 과제는 내부통합의 완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임
  - 과거의 법적, 제도적 차원의 외형적 통합에서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함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獨逸 統一은 우리에게 統一 作業의 제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豫示하여 증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 獨逸은 동방정책과 아울러 東西獨間의 꾸준한 내부교류가 있었으나, 統一에 對備한 마스터플랜이 없었으며 舊동독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판단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유의해야 함
  - 統一方式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原所有主 返還原則下의 私有化는 법적 소유자의 판정이 어려워 투자유치가 지연되므로 補償原則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적절한 通貨 交換比率을 적용, 급격한 통화절상에서 야기되는 기업의 大量倒産, 단기간내의 大量失業發生을 예방하여 통일 비용을 줄이고 社會安定을 도모해야 함
  - 기업차원의 경제교류는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투자이므로 선별적으로 장려 되어야 함
- 南北韓의 격차가 東西獨보다 크고, 獨逸에 비해 人口對比(동서독 4:1, 남북한 2:1)도 불리하며 북한이 舊동독보다 더 폐쇄적이어서 南北韓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것임 (장 민 수)